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이 수 립[†]

열린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서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47명의 성인자료를 대상으로 외상경험질문지, 스트레스 대처 반응 검사, 사회적 지지척도, 외상후성장 척도, 초월적 지혜척도를 실시하였다. 먼저, 두 외상 유형 집단인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을 비교하여 외상후성장과 외상 정도, 사회적 지지, 대처, 지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대인외상집단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 외상후성장 및 지혜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외상집단의 외상 정도, 회피적 대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경로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외상 유형이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 외상후성장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외상 유형에서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와 사회적 지지에서 회피적 대처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회피적 대처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비대인외상 유형이며, 사회적 지지가 높고, 긍정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외상후성장이 높고 지혜가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외상에 대한 개입방안,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외상후성장, 사회적 지지, 대처, 외상 유형, 지혜, 경로 분석

[†] 교신저자 : 이수립,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mail : sulimhm@hanmail.net

우리사회에는 범죄, 질병, 사고 등 삶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곤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고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사고, 홍수와 태풍, 교통사고 등의 재난 및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외상 사건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사회이다(이종한, 2003). 외상(trauma)은 극도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죽음 또는 심각한 상처를 실제로 초래했거나 위협한 사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한 사건’이면서 ‘극심한 두려움, 무기력, 공포를 초래한 사건’(DSM-IV-TR)으로 정의된다(APA, 2000). Tedeschi와 Calhoun (2004)은 외상 사건은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며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의 외상 정의는 DSM-IV(APA, 2000) 정의를 포함하면서도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대표적인 외상 사건으로는 암과 같은 질병, 범죄 피해, 사별 등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공포, 불안, 회피반응을 나타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기도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을 겪은 이후 외상 사건의 악몽 등 재경험, 외상 관련된 사건의 회피, 불면증 등 신체적 각성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써 참전 군인, 성폭행 피해자, 재난 피해자 등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진단되곤 한다(이봉건, 2012). 현재 우리사회는 자살, 범죄 등의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외

상 사건은 간과할 수 없는 삶의 경험이다. 따라서 외상을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그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부분의 이해는 우리에게 외상 극복 과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와 관련하여,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이 내면적으로 성장한다는 제안과 연구결과들이 있다(Aldwin, 2007; 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1995). Tedeschi와 Calhoun(1995, 2004)은 ‘외상후성장’을 외상 사건과의 투쟁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단지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전 적응 수준을 넘어서는 자신 및 타인, 삶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Tedeschi와 Calhoun(1995, 2004)이 제시한 외상후성장 이론에 의하면, 외상사건은 우리 개인의 신념과 목표, 세계관을 뒤흔들어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목표와 신념, 인생 담화, 정서적 고통을 다루도록 도전시킨다(그림 1 참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붕괴된 자신과 삶에 대한 신념과 목표를 재건해야 하고, 정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상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추와 자기노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반추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아 보다 정교한 삶의 도식과 인생 이야기를 재건하고 발전시켜 ‘외상후성장’을 하게 된다.

Tedeschi와 Calhoun(1996)에 따르면, 외상후성장은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를 포함한다. 자기 지각의 변화라 함은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지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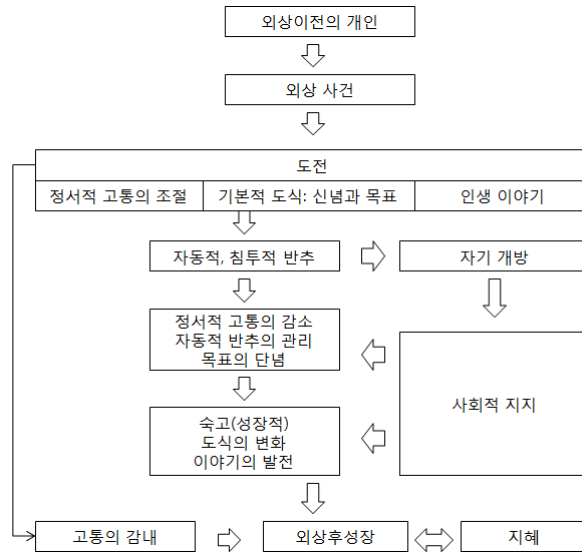


그림 1. 외상후성장 모델(Tedeschi & Calhoun, 2004)

내적인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인관계의 변화라 함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의 증가 등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일컫는다. 또한 인생관의 변화는 인생 목표의 변화, 종교적 영적 관심의 증가 등 삶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말한다. 결국에 우리는 외상사건과의 투쟁과정을 거쳐 삶과 자신에 대한 도식의 재구조화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 즉 지혜가 발달하게 된다.

또한 Aldwin과 Sutton, Lachman(1996)은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편차확장모형(Deviation Amplification Model)을 제안하였다. 편차확장모형은 외상후성장에 있어서 외상 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처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즉 외상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 긍정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선순환이 확장되어 개인에게 외상후성장과 같은 긍정적 결과가 초래되

고, 부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악순환이 증폭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적 질병, 우울 등의 부적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사건에 긍정적인 대처를 하면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에 의해 외상후성장이 촉진되고 이후 지혜 발달이 일어나 적응을 더 잘하게 되는 반면 부정적인 대처를 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증대하고 질병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Aldwin, Levenson, & Kelly, 2009).

한편 지혜와 외상후 성장 이론들에서는 외상 극복 과정을 통해 지혜가 발달한다고 제안한다(Aldwin, Sutton, & Lachman, 1996; Glück, Bluck, Baron, & McAdams, 2005; Hartman, 2000; McKee & Barber, 1999; Tedeschi & Calhoun, 1995, 2004). 즉,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도식이 바뀌고, 인간의 한계, 인생의 모순이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 더 넓은 관점과 깨달음을 내면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지혜는 삶에서

의 깨달음, 즉 자아를 규정하는 외적인 요소들(사회적 역할, 위치, 소유물 등)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초인지적 관점의 변화를 일컫는다(Levenson et al., 2005). 또한 인지적인 탁월성, 통합된 자아, 관계에서의 포용과 배려를 포함한다(이수림, 조성호, 2012; Ardel, 2003). 즉, 외상후성장이 외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및 정서의 긍정적 변화라고 한다면, 지혜는 이를 통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및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 경험이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혜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지혜의 효과 측면을 고려한다면, 외상 극복 경험을 통해 촉진된 지혜는 이후 또 다른 삶의 역경을 맞이할 때 보다 잘 극복하고 적응하게 한다(Ardelt, 2003; Hartman, 2000). 지혜와 외상후성장의 관계는 종단적으로 바라볼 때 상호 영향을 있다고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과 그 이후의 외상후성장 및 지혜 발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외상 사건에서부터 외상후성장에 이르는 경로와 이를 통해 발달하는 과정은 외상을 경험한 이후의 개입과 개인적 대처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주기 때문이며, 그동안 역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혜가 발달한다는 이론과 주장들은 일관되었으나, 외상후성장과 지혜와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Jennings와 Aldwin, Levenson, Mroczek(2006)은 전쟁 참전자들의 외상후성장이 지혜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는 연구된 바가 아직 없다.

한편 외상 사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외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제안한다. 즉 외상사건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외상사건의 가해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범죄 피해, 학대 등 사람에 의한 외상과 재해 등 자연에 의한 외상으로 구분한 바 있다(김보미, 유성은, 2012; 최은영, 안현의, 2011; Allen, 2005).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 외상 사건은 다른 유형의 외상 사건에 비해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Frideman, Resick, & Keane, 2007). 김희경(2012)의 연구에서, 대인 및 질병 외상을 함께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외상 유형 경험자보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 증상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안현희(2007)는 학대와 같이 대인간 폭력에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된 외상 유형을 복합외상으로 다르게 진단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반복적인 대인외상인 복합외상자들은 단순 외상자들보다 높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나타냈으며, 부적응 지표 점수가 높았다(주혜선, 2008; 주혜선, 정희진, 하정, 최선재, 안현의, 2009). 이와 같이 대인외상 유형은 더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및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승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재해나 질병, 사고 등의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인간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비교적 높은 정도의 외상후성장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미연과 김지혜, 조용래(2012)의 연구에서 대인외상 경험자와 단순외상 경험자간의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었는데, 단순외상 경험자들에게는 자아 탄력성이 중요한 요인인 반면에, 대인외상 경험자들에게는 부정적 인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듯 외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외상후성장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차이가 있

으나 아직까지 외상 유형과 외상후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경로를 밝힌다면 외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이해 및 개입에 대한 청사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Linley와 Joseph(2004)는 외상후성장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외상후성장과 관련되는 변인들로 외상 유형, 사건에 대한 평가, 인구통계학적 변인, 대처, 사회적 지지, 종교, 인지적 대처 과정, 정서, 고통 정도 등을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변인들 중에서 대처 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희정 등, 2008; 김진수, 서수균, 2012; 한인영, 이인정, 2011; Cadell, Regehr, & Hemsworth, 2003; Park, Aldwin, Fenster, & Snyder, 2008).

외상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와 같은 긍정(적극)적 대처가 회피적 대처보다 외상후성장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melie, Gunther, & Cohen, 2001; Evers, Kaaimaat, Van Lankveld, Jongen, Jacobs, & Bijl, 2001).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긍정적 대처가 회피적 대처보다 외상후성장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김희정 등, 2008; 한인영, 이인정, 2011; Bellizzi & Blank, 2006; Boyers, 2001; Collins, Taylor, & Skokan, 1990; Sears, Stanton, & Danoff-Burg, 2003; Urcuyo, Boyers, Carver, & Antoni, 2005). 또한 긍정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외상사건 이후에 개인이 외상후성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는 방향의 분기점의 역할을 하였다. Park 등(2008)은 긍정적 대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외

상후성장과 더 관련되며, 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성장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더 관련되었음을 밝혔다. 이성진과 조용래(2009)의 연구에서도 회피적 대처를 사용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더 큰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대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었으나, 대체로 긍정적 대처라 함은 논리적 분석, 문제해결, 긍정적 재평가, 의미찾기 등 문제중심적, 인지적 대처를 말하며, 회피적 대처는 체념, 감정 방출, 회피 등을 말한다. 긍정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독립적이지 않고 낮은 상관을 나타낸 바 있다(Moos, 1992; Park et al., 2008; 박성렬, 2011), 선행 연구들에서 긍정적 대처 중 긍정적 재평가, 의미찾기 등의 인지적 대처가 외상후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다(김희정 등, 2008; 이유리, 2010; Collins et al., 1990; Sears et al., 2003; Urcuyo et al., 2005). 이는 외상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미 부여와 해석에서 성장지향적인 인지처리과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오은아, 박기환, 2011). 즉, 외상 사건에 대한 반추 자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외상사건을 분석하고 의미화하고 재평가하는 인지과정이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alhoun, & Tedeschi, 2000).

한편, 사회적 지지는 외상후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Armelie et al., 2001; Park et al., 1996; Tedeschi & Calhoun, 1995). 비록 몇몇 연구에서는 외상후성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실패했으나(Cordova, Cunningham, Carlson, & Andrykowski, 2001; Sears, et al., 2003),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Cadell, Regehr,

& Hemsworth, 2003; Schulz & Mohamed, 2004). Weiss(2002)도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성장과 관련되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을 견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을 밝힌바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희정 등(2008)의 유방암 생존자 대상 연구, 한인영과 이인정(2011)의 암환자 대상 연구에서 외상후성장 관련 요인 탐색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대처에 이어 외상후성장을 두 번째로 잘 설명해주는 요인이 밝혀진 바 있다. 윤명숙과 박은아(2011)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대상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성장적 반추를 하게 되어, 외상후성장을 이끈다고 밝혀졌다(김진수, 서수균, 2011; 신선영, 2009).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완화효과를 준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처와 같은 변인들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완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완충효과는 외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낮추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Cohen & Wills, 1985). 즉,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할 때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느끼도록 하여 외상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하도록 돕는다. 오명자와 김병욱, 김미례(2008)은 완충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대처를 하도록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문제중심 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Asberg, Bowers, Renk, & Mckinney, 2008; Chao, 2011). 이전의 외상후성장 연구들은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사회적 지지와 대처를 확인하였으나, 두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대처가 어떤 경로를 통해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검증하여 외상 경험자들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외상사건, 대처, 외상후성장, 지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의 유형을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의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이론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동안, 주요 변인들의 개별적 관련성은 검증되었으나 외상후성장과 사회적 지지, 대처, 지혜 변인들의 관련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성장과 지혜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와 대처, 외상후성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을 비교하여 외상후성장과 외상 정도, 사회적 지지, 대처, 지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대인간 외상집단보다 비대인외상집단이 외상후성장 및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 지혜 정도가 높고 외상 정도 및 회피적 대처의 정도는 낮을 것이다’이다. 둘째, 외상 유형이 사회적 지지, 대처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과 지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문제를 위한 가설 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유형은 사회적 지지, 긍정적, 회피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외상유형은 사회적 지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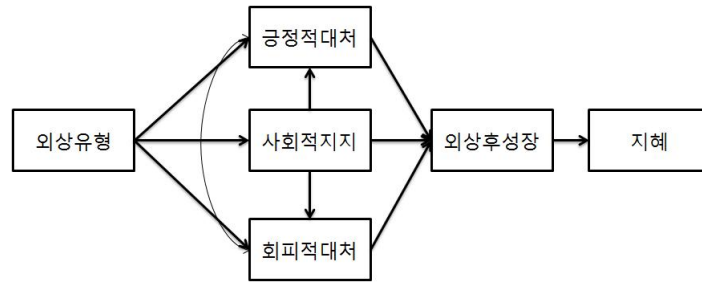


그림 2. 가설모형

긍정적, 회피적 대처,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대처 및 회피적 대처와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는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긍정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곱째, 외상후성장은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비대인 외상 유형이고,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고, 긍정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회피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외상후성장 수준이 높고, 궁극적으로 지혜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외상 유형과 대처,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상 유형에서 대처와 사회적 지지로 가는 직접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외상 유형, 긍정적 대처, 회피적 대처, 사회적 지지가 모두 직접적으로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경쟁모형1로 설정하였다. 또한 Cohen과 Wills(1985)의 주효과 이론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대처를 매개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형도 경쟁모형2로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257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7명)와 외상 경험이 없는 응답자(3명)를 제외한 247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47명의 참여자 중 남자가 86명(34.8%), 여자가 161명(65.2%)이었다. 평균 연령은 37.34($SD=9.90$)이었으며, 연령범위는 19세에서 65세이었다. 연령 범주로 보면, 19세에서 29세가 60명(24.3%), 30대가 81명(32.8%), 40대가 76명(30.8%), 50대 이상이 30명(12.1%)이었다.

도구

외상 경험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상경험 질문지(송승훈, 2006; 신선영, 2009; 최승미, 2008)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Tedeschi & Calhoun(2004)의 외상 정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외상 사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응답하고, 응답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컸던 사건을 하나 선

택하여 기술하고, 외상 정도에 대해 7점 리커트 형태(1점: 전혀 힘들지 않았다, 7점: 매우 힘들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대처

외상 경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스트레스 대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Moos(1992)가 개발하고 박성렬(2011)이 타당화한 성인용 대처 반응 검사(Coping Response Inventory: C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개 하위 요인,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지 추구, 문제해결, 인지적 회피, 수용/체념, 대안적 보상 추구, 감정방출로 구성되어 있다. 박성렬(201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 본 연구의 신뢰도는 .87을 나타내었고, 긍정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22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Burns 등(2008)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지 추구, 문제 해결, 대체 보상 추구를 긍정적 대처로, 인지적 회피, 수용/체념, 감정방출을 회피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Blumenthal 등(1987)이 개발하고, 김희정과 동료들(2008)이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김희정 등(200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외상후성장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Tedeschi & Calhoun(2004)이 개발하고 송승훈(2006)이 번안

하여 타당화한 외상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내적 힘의 발견, 삶에 대한 감사, 영적 관심의 증가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송승훈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6이었다.

초월적 지혜

지혜를 측정하기 위해 Levenson과 Jennings, Aldwin, Shiraishi(2005)이 개발하고 이수림과 조성호(2012)가 번안한 성인용 자아초월 척도(The Adult Self-transcendent Inventory: ASTI)를 사용하였다. 자아초월 척도는 초월적 지혜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신뢰도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2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도구의 신뢰도, 비교검증 등은 SPSS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상유형, 사회적 지지, 대처 및 외상후성장, 지혜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OS 5.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결 과

외상 사건 유형

외상 사건을 살펴보면, 재정적 어려움(부도, 파산 등)이 34명(13.8%)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및 별거가 33명(13.4%), 가족 및 가까운 이의

질병과 학업 및 성취관련 실패가 각 31명 (12.6%)으로 뒤를 이었다. 대인관계 적응 문제, 배신, 사랑하는 이의 사망, 본인의 질병, 사고, 학대 경험 등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범죄피해와 자연재해는 각 1명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외상 사건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소수로 분포되어 있어, 유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유목화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외상이 단순 외상보다 그 심각성이 크다는 선행 연구들의 제안에 따라(예, 이미연 등,

2012; 최승미, 2008), 대인외상과 질병과 재해 등 비대인외상으로 구분하였다. 대인외상 경험에는 범죄피해, 성범죄, 대인관계 적응문제(따돌림), 이혼 및 별거, 학대를, 비대인외상 경험에는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및 상해, 실직, 재정적 어려움, 실직을 포함시켰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사건은 그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경우(11건)와 범죄피해로 인한 경우(1건)가 있어, 질병에 의한 사망은 비대인 외상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은 범죄 피해

표 1. 외상 사건 유형

영역	구분	빈도	백분율(%)
비대인외상	사고/상해(교통사고, 화재 등)	10	4.0
	자연재해(홍수, 지진 등)	1	0.4
	본인의 심각한 질병(예, 암 등)	16	6.5
	가족 및 가까운 이의 질병	31	12.6
	사랑하는 이의 사망(배우자 등)	11	4.5
	학업 및 성취 관련(낙방, 실패 등)	31	12.6
	실직, 구직 실패	9	3.6
	재정적 어려움(부도, 파산 등)	34	13.8
	기타(비대인)	4	1.6
	소계	147	59.5
대인외상	범죄 피해(강도, 폭행 등)	2	0.8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4	1.6
	이혼 및 별거(본인 또는 부모)	33	13.4
	배신 충격(사기, 외도 등)	16	6.5
	대인관계 파탄(이별, 절교 등)	15	6.1
	대인관계 적응문제(따돌림, 괴롭힘)	17	6.9
	어린 시절의 학대 받은 경험	10	4.0
	소계	97	39.3
기타	두 사건이 공존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3	1.2
합계		247	100.0

로 포함시켰다. 외상 사건 유형은 표 1과 같다. 그밖에 개인이 지각한 외상 정도는 평균 6.14(7점 리커트, $SD=1.17$)이었으며, 외상 경험 시기는 10년 이상 지난 경우가 93명(37.7%), 5년이상 10년미만이 61명(24.7%), 1년 이상 5년미만이 64명(25.9%), 1년 미만이 28명(11.3%)이었으며, 외상 경험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99명(40.2%)이었다.

외상 유형에 따른 외상 정도, 사회적 지지, 대처, 외상후성장, 지혜의 비교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의 외상후성장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성별, 연령, 외상 영향의 지속성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통제 한 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은 등분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정도, 긍정적 대처, 회피적 대처, 사회적 지지, 외상후성장, 지혜에 있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인외상 집단의 외상 정도와 회피적 대처점수가 높은 반면, 긍정적 대처, 사회적 지지, 외상후성장, 지혜 점수는 비

대인외상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2 참조).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의 가설(“비대인외상 집단이 대인외상 집단보다 외상후성장 및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 지혜가 높고 외상 정도와 회피적 대처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 분석

가설모형의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2를 넘지 않아 정규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상 유형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외상 유형이 비대인외상 집단일수록 사회적지지, 긍정적 대처, 외상후성장, 지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7 \sim .22, p < .01$), 대인 외상 집단일수록 회피적 대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5, p < .05$).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대처($r = .42, p < .001$), 외상후성장($r = .46, p < .001$), 지혜($r = .22, p <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긍정적 대처는 회피적 대처($r = .16, p < .01$), 외상후성장($r = .57, p < .001$), 지혜($r =$

표 2.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의 비교

변인	대인외상 집단($n=98$) <i>M(SD)</i>	비대인외상 집단($n=144$) <i>M(SD)</i>	<i>F</i> (2, 237)
외상 정도	6.15(1.19)	6.13(1.16)	90.26***
사회적 지지	49.92(18.80)	57.21(17.36)	34.27***
긍정적 대처	14.23(3.00)	15.17(2.52)	94.18***
회피적 대처	13.82(2.74)	13.43(2.56)	81.27***
외상후성장	78.47(22.85)	86.49(20.42)	36.49***
지혜	33.82(4.93)	35.40(4.29)	157.54***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 분석(N = 242)

	M(SD)	1	2	3	4	5
1. 외상 유형	0.60(0.49)	-				
2. 사회적 지지	54.25(18.35)	.22***	-			
3. 긍정적 대처	14.79(2.76)	.17**	.42***	-		
4. 회피적 대처	13.59(2.65)	-.14*	-.10	.16*	-	
5. 외상후성장	83.24(21.78)	.19**	.46***	.57**	-.07	-
6. 지혜	34.80(4.62)	.17**	.22**	.43***	-.02	.62***

주. 외상유형(0=대인외상, 1=비대인외상)

* $p < .05$, ** $p < .01$, *** $p < .001$

.43, $p < .0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긍정적 대처의 사용이, 외상후성장과 지혜에 관련됨을 나타내었고, 외상후 성장은 지혜($r = .62, p < .001$)와 관련되어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매개모형 검증에 앞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1에 가깝고, 분산팽창요인이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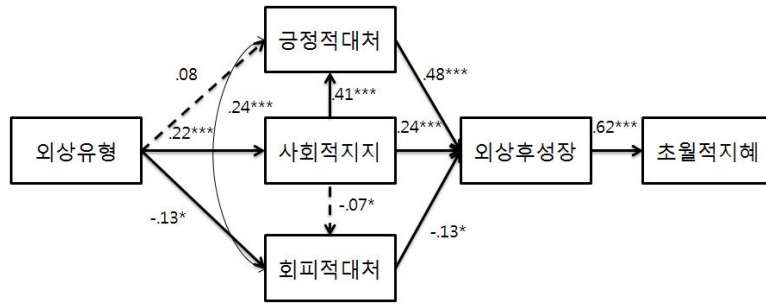
매개모형 검증

외상 유형, 사회적 지지, 대처 방식,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와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경쟁모형들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4, 그림 3 참조). 경로분석 결과, 외상 유형에서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 사회적 지지에서 회피적 대처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다중상관

표 4. 가설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외상 유형 → 사회적 지지	.215	8.023	2.347	3.419***
외상 유형 → 긍정적 대처	.080	.450	.334	1.347
외상 유형 → 회피적 대처	-.130	-.699	.351	-1.990*
사회적지지 → 긍정적 대처	.405	.061	.009	6.809***
사회적지지 → 회피적 대처	-.068	-.010	.009	-1.047
사회적지지 → 외상후성장	.238	.283	.067	4.229***
긍정적대처 → 외상후성장	.484	3.820	.449	8.517***
회피적대처 → 외상후성장	-.128	-1.047	.425	-2.466*
외상후성장 → 지혜	.615	.131	.011	12.119***
긍정적대처 ↔ 회피적대처	.235	1.525	.430	3.545***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외상유형, 대처, 사회적 지지, 외상후성장, 지혜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형

치 결과, 외상후성장의 설명력은 39%, 지혜의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일련의 타당도 검증 결과,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보다 좋게 나타났다($\chi^2 = 10.83$, $df = 5$, $p = .055$, TLI = .94, CFI = .98, RMSEA = .07, 표 5 참조).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외상 유형에서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 사회적 지지에서 회피적 대처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들은 모두 유의하였다. 외상유형에서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와 사회적 지지에서 회피적 대처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 하지 않아 이 경로들에서 매개효과를 검증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경로에서 외상유형,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 회피적 대처, 외상후성장

의 매개효과를 검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붓스트랩 방법은 통계 추정치의 유의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매개효과와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Shrout와 Bolger(2002)는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 원 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 이상의 붓스크랩 자료표본과 95% 신뢰구간을 사용하도록 제안한 바, 본 연구에서도 그 방식을 따랐다. 이 방식에서는 매개효과 추정치가 95% 신뢰구간 내에서 영가설의 설정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붓스트랩 결과,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붓스트랩 결과에

표 5. 모델 검증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90% CI)
가설모형	10.83	5	.94	.98	.07(.00 - .13)
경쟁모형1 ¹⁾	84.57	9	.60	.76	.19(.15 - .22)
경쟁모형2 ²⁾	59.36	7	.64	.83	.18(.14 - .22)

1) 경쟁모형1: 외상 유형, 사회적 지지, 긍정적대처, 회피적대처가 모두 직접적으로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형

2) 경쟁모형2: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회피적 대처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형

표 6. 변인들의 매개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외상유형→회피적대처→외상후성장	-.13 (-.26~.01)	.15** (.07~.23)	.15** (.07~.23)
외상유형→회피적대처→외상후성장→지혜	-.13 (-.26~.01)	.09*** (.04~.15)	.09*** (.04~.15)
외상유형→사회적 지지→긍정적대처	.22*** (.09~.34)	.09** (.04~.15)	.17** (.04~.30)
외상유형→사회적 지지→긍정적대처→외상후성장	.22*** (.09~.34)	.15** (.07~.23)	.15** (.07~.23)
외상유형→사회적지지→긍정적대처→외상후성장→지혜	.22*** (.09~.34)	.09*** (.04~.15)	.09*** (.04~.15)
외상유형→사회적지지→외상후성장	.22*** (.09~.34)	.15** (.07~.23)	.15** (.07~.23)
사회적지지→긍정적대처→외상후성장	.41*** (.27~.52)	.21*** (.14~.28)	.44*** (.32~.55)
사회적지지→긍정적대처→외상후성장→지혜	.41*** (.27~.52)	.28*** (.19~.40)	.27*** (.20~.36)
사회적지지→외상후성장→지혜	.24*** (.27~.52)	.28*** (.19~.40)	.27*** (.20~.36)
회피적대처→외상후성장→지혜	-.13* (-.24~-.02)	-.08* (-.15~-.01)	-.08* (-.15~-.01)
긍정적대처→외상후성장→지혜	.48*** (.36~.60)	.30*** (.20~.40)	.30*** (.20~.40)
외상후성장→지혜	.62*** (.51~.70)	-	.62*** (.51~.70)

주. * $p < .05$, ** $p < .01$, *** $p < .001$, $N = 242$

서 외상유형에서 사회적 지지를 거쳐 긍정적 대처, 외상후성장 및 지혜로가는 경로와 외상 유형에서 사회적 지지,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로 가는 경로는 95%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외상유형에서 회피적대처로 가는 경로계수의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붓스트랩 검증에서는 외상유형에서 회피적대처로 가

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붓스트랩 검증의 유의성이 경로계수의 유의성보다 오차한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엄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가설 1(“외상유형은 긍정적, 회피적 대처와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연구 가설 2(“외상유형은 긍정적, 회피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초월적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대처가 매개변인일 경우만 유의미하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서 외상후성장을 거쳐 지혜로 가는 경로, 사회적 지지에서 긍정적 대처, 외상후성장을 거쳐 지혜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지지는 긍정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 가설 3(“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회피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연구 가설 4(“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회피적 대처와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초월적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긍정적 대처가 매개변인일 경우에 한정되어 지지되었고, 가설 5(“사회적 지지는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또한 긍정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 가설 6(“긍정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외상후성장에서 지혜로 가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여 연구 가설 7(“외상 후 성장은 지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회적지지, 대처 및 외상후성장과 지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상 사건 유형에 따라 외상후성장 및 관련 변인들에 있어서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외상 사건 유형에 따라 대인외상 및 비대인외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외상후성장과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외상 유형, 사회적 지지, 대처, 외상후성장 및 지혜와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상 유형 집단 간 외상후성장 관련 변인들의 비교 검증 결과, 비대인외상 집단이 대인외상 집단에 비해 외상후성장, 사회적지지, 긍정적대처, 지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대인외상 집단이 외상 정도, 회피적 대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외상 유형에서 외상후성장 및 지혜로 가는 경로 분석 결과, 외상 유형이 사회적지지, 대처,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경쟁모형에 비해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외상 유형에서 사회적지지, 긍정적 대처를 매개로 외상후성장,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외상 유형에서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즉 비대인외상 유형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외상후성장에 직접적으로, 또는 긍정적 대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긍정적, 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외상 유형에서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 사회적 지지에서 회피적 대처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상 유형에서 회피적 대처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나타내었으나, 붓스트랩 매개효과검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회피적 대처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비대인외상 유형 집단이 외상 유형 집단보다 외상후성장 관련 변인들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비대인외상 유형 집단의 외상후성장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최승미(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외상 유형간의 외상후성장 수준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 긍정적 대처에서는 비대인외상 집단의 점수가 높았고, 외상 정도, 회피적 대처에서는 대인외상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즉,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은 비대인외상 집단보다 외상을 고통스럽게 지각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였고, 긍정적 대처보다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첫째, 대인외상 사건 유형에는 주변인의 사기나 배신, 학대, 따돌림, 이혼 등 평소에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단절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어 사회적 지지가 낮아졌을 것이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비대인외상 경험보다 사람에 의해 피해를 겪은 경험의 경우는 대인관계에 대한 실망과 배신 등 관계에 대한 신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위 사람들을 불신하고 회피하거나 타인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게 하는 영향이 있는 것이라 고려된다. Herman(1992)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폭력으로 인한 외상은 질병, 재해 등의 외상 사건과 달리 외상 경험자들의 성격 변화까지 수반한다고 하였고, 복합외상 피해자들은 단순외상자들보다 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안현의, 주혜선, 2011). 즉, 외상으로 대인관계의 단절 또는 상처를 경험한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회피하려는 경향을 많이 나타내어 외상후성장 및 지혜의 정도도 낮게 나타나

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대인외상 경험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반복적인 대인외상 경험자들은 복합외상으로 달리 구분하여, 그 증상에 적합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개입을 통해 사회적지지와 긍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부합된다(Moore, Varra, Michael, & Simpson, 2010; Park et al., 2008; Park et al., 1996). 또한 본 결과는 Aldwin 등(1996)의 긍정적 대처가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Tedeschi와 Calhoun(1995, 2004)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긍정적 인지적 대처과정을 통해 외상후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상 유형이 직접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여, 사회적 지지가 외상 사건에 대한 완충 효과를 주어 긍정적 대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가설모형 검증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대처가 외상후성장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과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Cohen과 Wills(1985)의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대처에 영향을 미친 Asberg와 동료들(2008), Chao(2011)의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작게는 가족, 친구, 크게는 지역사회, 사회제도까지 사회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적인 지지망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외상 사건

으로 인해 기존의 지지를 잃게 된 경우는 더욱 사회제도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상 사건 경험자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확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하다.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난 관리는 아직 행정적 차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재난 정신건강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이승연, 2007). Zoellner와 Maercker(2006)은 심리상담은 인지적 과정, 새로운 경험 시도에 대한 지지, 대인관계의 확장을 통해 외상후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에게 일반적인 지지를 넘어서서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대처 방식에까지 치료적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긍정적 대처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외상사건을 겪었을 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식을 찾고,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재해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긍정적 대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외상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도 적용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심리적 경험보고와 위기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로분석에서 외상 유형은 회피적 대처를 거쳐서 외상후성장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대인외상일수록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외상후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어진 붓스트랩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외상 유형에서 회피적 대처로 가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붓스트랩 매개효과 검증은 경로계수보다 엄격

하게 유의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경로계수의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매개효과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엄격성을 완화하여 붓스트랩 매개효과 검증을 90% 신뢰구간에서 할 경우에는 회피적 대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23 \sim -.01$).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인외상 유형이나 복합외상 유형의 외상 경험자들이 회피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안현의, 주혜선, 2011; 이성진, 조용래, 2009). 따라서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는 회피적 대처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대처를 높이고, 회피적 대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Chao, 2011; 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회피적 대처를 낮추기보다는 긍정적 대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회피적 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피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외상 유형뿐만 아니라 외상 정도는 회피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다(김희경, 2012; 이성진, 조용래, 2009). 따라서 이와 같은 변인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지지가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검증을 하였으나, 이 두 가지 변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긍정적(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성장을 매개로 지혜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긍정적 대처는 외상후성장을 촉진시키고, 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촉진시킨다는 Aldwin 등의(1996) 편차확장모델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선행연구들의 결과에도 부합하는 결과이다(오은아, 박기환, 2011; 윤명숙, 박은아, 2011; 한인영, 이인정, 2011; Bellizzi & Blank, 2006; Boyers, 2001; Collins, Taylor, & Skokan, 1990; Sears, Stanton, & Danoff-Burg, 2003; Urcuyo, Boyers, Carver, & Antoni, 2005). 한편 회피적 대처는 외상후성장과의 관련성보다 삶의 부적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어(Park et al., 2008),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상후성장은 지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에서 외상후성장은 긍정적 대처에서 지혜로 가는 경로, 사회적지지에서 지혜로 가는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ennings 등(200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녀는 외상후성장이 13년이 지난후의 지혜를 예언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대처가 매개한 것을 검증하여 긍정적 대처가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개인은 외상사건을 경험하면서 겪는 고통과 대처하는 노력 속에서 개인은 인생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삶의 도식을 발달시키며 외상후성장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Aldwin et al., 1996; Tedeschi & Calhoun, 1995, 2004), 본 연구는 외상의 극복을 통해 지혜가 발달한다는 명제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과거의 외상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토대로 한 횡단적 연구이다. 따라서 응답에 현재 정서상태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상후성장을 연구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외상후성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혜가 발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횡단적 연구의 한계이며, 이후 종단 연구 방법 또는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외상후성장 및 지혜 발달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에서 지혜가 발달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후속연구에 지혜의 효과측면을 고려하여 지혜가 외상의 극복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표집이 다양하지 못해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 사이버대학교의 250여명의 수강생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편의표집된 작은 표본의 결과를 다른 집단 및 임상 집단에서의 적용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추후 임상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함으로써 일반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측정 도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상 정도는 외상 당시의 고통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는 7점리커트 척도의 1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정확한 외상에 대한 고통과 증상을 측정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척도와 같은 타당화된 척도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혜는 Levenson 등(2005)의 초월적 지혜이다. 지혜는 그 개념이 광범위함에 따라 실용적 지혜, 성격적 지혜 등 다

양한 구성개념과 척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혜의 다른 구성개념 또는 다차원적인 지혜의 구성개념을 반영하는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이 연구의 일반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유형을 비대인외상과 대인외상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 및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외상 사건에 대한 연구들은 외상 사건의 내용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론적 한계 상 분류하지 못하고 같은 외상 사건의 맥락에서 연구하였다. 최근 외상 사건 유형을 구별하려는 움직임들이 몇몇 연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외상 사건 유형에 따른 외상후성장에 대한 탐색도 소수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데 있다. 이는 외상 경험자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방법에서 그 외상 유형에 따라 다르게 개입해야 함을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다. 대인관계 외상 경험이 개인에게 더욱 고통을 주며 그 경험을 내적으로 극복하고 외상후성장과 지혜를 얻게 더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이 과거 외상 경험을 내면적으로 치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는데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개입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Tedeschi와 Calhoun(1995, 2004), Aldwin 등(1996)의 이론에서 제안한 외상후성장과 지혜와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동안 외상후성장과 지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은 있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는 없었고, 처음으로 외상후성장과 지혜와의 관련성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지혜와 외상후성장 이론에서 제안한대로 외상 경험의 극복을 통해 인생과 자신에 대한 깨달음, 즉 성장을 통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외상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갖게 되는 경로가 아닌 외상후성장을 하게 되는 경로는 탐색함으로써 외상 사건을 경험할 때 적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시사하고 있다. 외상 경험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며, 우리는 외상 경험이후에 겪을 수도 있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외상과 같은 삶의 역경을 대할 때 희망을 가지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역경 극복 과정을 통한 지혜 발달 과정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외상 유형에서 지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변인들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 외상후성장을 거쳐 지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검증되었다. 이는 외상 경험자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 있어서 그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전략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유형과 긍정적 대처로 가는 경로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개인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사회제도를 통해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긍정적 대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 논문이 아직까지 재난과 같은 외상 사건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도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외상 경험자들이 사회의 지지와 전문적 개입을 통해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외상 사건 경험자들에 대한 공감하는 사회적 문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보미, 유성은 (2012).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31-748.
-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93-809.
-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3-1022.
-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 란, 이건설 (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후성장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81-799.
- 박성렬 (2011). 성인용 대처 반응 검사의 타당화.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2006).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신선영 (2009). 삶의의미와 사회적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 오명자, 김병옥, 김미례 (2008). 중년기 여성의 주부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99-520.
- 오은아, 박기환 (2011). 경험논문: 사후가정사고와 사고통제방략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577-593.
- 윤명숙, 박은아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외상후성장 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12, 61-89.
- 이미연, 김지혜, 조용래 (2012). 외상유형, 자아탄력성 및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발표논문집*, 241.
- 이봉건 (2012).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이성진, 조용래 (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지각된 통제감과 회피 대처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15-436.
- 이수림, 조성호 (2012). 한국판 지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1-25.
- 이승연 (2007). 심리적 경험보고의 문제점들과

- 올바른 적응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63-89.
- 이종한 (2003). 사고공화국에 대한 심리학적 제의: 안전사고의 심리적 기제와 대안 모색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안내하면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1-14.
- 이유리 (2010). 외상후성장의 애착-인지 모형 검증: 입양 미혼모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혜선 (2008). 중복된 외상 유형에 따른 PTSD 심각성, 불안, 우울 및 PTSD 위험 요인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26-327
- 주혜선, 정희진, 하 정, 최선재, 안현의 (2009). 외상 유형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 양상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454-455.
- 최승미 (2008). 외상후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한인영, 이인정 (2011). 암환자의 외상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2), 419-441.
- Ardelt, M. (2003). Development and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Aldwin, C. M. (2007). *Stress, coping, and human development: An integrative approach*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Aldwin, C. M., Levenson, M. R., & Kelly, L. L. (2009).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tress-related growth. In C. L. Park, S. Lechner, A. Stanton, & M. Antoni (Eds.), *Medical illness and positive life change: Can crisis lead to personal life transformation? Positive life changes in the context of medical illness* (pp. 87-104). Washington, DC: APA press.
- Aldwin, C. M., Sutton, K. J., & Lachman, M. (1996). The development of coping resources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64(4), 837-871.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meli, S., Gunthert, K., & Cohen, L. H. (2001), Stressor Appraisals, Coping, and Post-Event Outcome: The Dimensionality and Antecedents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66~395.
- Asberg, K. K., Bowers, C., Renk, K., & Mckinney, C. (2008).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he study of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emerging adul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39, 481-501.
- Bellizzi, K. M., & Blank, T. O. (2006). Predicting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Health Psychology*, 25, 47-56.
- Blumenthal, J. A., Burg, M. M., Barefoot, J., Williams, R. B., Haney, T., & Zimet, T. (1987). Social support,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artery disease, *Psychosomatic Medicine*, 49, 331-340.

- Boyers, A. E. (2001). The influence of cognitive behavioral stress management, optimism, and coping on positive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1, 5552B.
- Burns, A., Brown, J., Sachs-Ericsson, N., Ashby Plant, E., Thomas Curtis, J., Fredrickson, B. L., & Joiner, T. E. (2008). Upward spirals of positive emotion and coping: Replication, extension, and initial exploration of neurochemical substr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360-370.
- Cadell, S., Regehr, C., & Hemsworth, D. (2003).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3(3), 279-287.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521-527.
- Chao (2011). Managing stress and maintaining well-being: Social support, problem-focused coping, and avoidant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9(3), 338-348.
- Cohen, S., & Willi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llins, R. L., Taylor, S. E., & Skokan, L. A. (1990). A better world or a shattered vision? Changes in life perspectives following victimization. *Social Cognition*, 8(3), 263-285.
- Cordova, M. J., Cunningham, L. L. C., Carlson, C. R., & Andrykowski, M. A. (2001).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reast cancer: A controlled comparison study. *Health Psychology*, 20, 176-185.
- Evers, A. W., Kraaimaat, F. W., van Lankveld, W., Jongen, P. J. H., Jacobs, J. W. G., & Bijlsma, J. W. J. (2001). "Beyond Unfavourable Thinking: The Illness Cognition Questionnaire for Chronic Disea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1026-1036.
- Glück, J., Bluck, S., Baron, J., & McAdams, D. P. (2005). The wisdom of experience: Autobiographical narratives across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3), 197-208.
- Hartman, P. S. (2000). Women developing wisdom: antecedents and correlates in a longitudinal sample. University of Michig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Jennings, P. A., Aldwin, C. M., Levenson, M. R., Spiro, A. III, & Mroczek, D. (2006). Combat exposure, perceived benefits of military service, and wisdom in later life: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Research on Aging*, 28, 115-124.
- Levenson, M. R., Jennings, P. A., Aldwin, C. M., & Shiraishi, R. W. (2005). Self-transcendenc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0(2), 127-143.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cKee, P., & Barber, C. (1999). On defining wisdo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9(2), 149-164.
- Moore, S. A., Varra, A. A., Michael, S. T., & Simpson, T. L. (2010) Stress-related growth, positive reframing, and emotional processing in the prediction of post-trauma functioning among veterans in mental health treatmen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2), 93-96.
- Moose, R. H. (1992). *Coping Responses Inventory: Adult Form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 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5.
- Park, C. L., Aldwin, C. M., Fenster, J. R., & Snyder, L. B. (2008). Pathways to Posttraumatic Growth Versus Posttraumatic Stress: Coping and Emotional Reactions Following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3), 300-312.
- Schulz, U., & Mohamed, N. E. (2004). Turning the tide: benefit finding after cancer surgery, *Social Science & Medicine*, 59(3), 653-66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ears, S. R., Stanton, A. L., & Danoff-Burg, S. (2003). The Yellow Brick Road and the Emerald City: Benefit Finding, Positive Reappraisal Coping, and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 *Health Psychology*, 22(5), 487-497.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18.
- Urcuyo, K. R., Boyers, A. E., Carver, C. S., & Antoni, M. H. (2005). Finding benefit in breast cancer: Relations with personality, coping, and concurrent well-being. *Psychology and Health*, 20, 175-192.
- Weiss, T. (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 65-80.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and psychotherapy.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334-54). Mahwah, NJ: Erlbaum.

논문 투고일 : 2013. 02. 06

1차 심사일 : 2013. 02. 27

게재 확정일 : 2013. 06. 26

The Effects of Traumatic Event Type on Posttraumatic Growth and Wisdom: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Lee Sulim

Open Cyber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on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 type, posttraumatic growth and wisdom by the data from 247 adults by using path analysis. Besides,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posttraumatic growth and related variables between traumatic event type groups. At first, The results of the MANCOVA, person-related traumatic event group were higher than the non-personal traumatic event group in negative coping and trauma stress level, and lower in social support, positive coping, posttraumatic growth and wisdom. The path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raumatic event type was related to wisdom by mediate factors. Traumatic event type affected wisdom through social support, positive coping, posttraumatic growth. The significant mediators were social support, positive coping, posttraumatic growth. Negative coping was not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event type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results show that non-personal traumatic event group are tends to have high level of social support, positive coping, posttraumatic growth, and wisdom. In the end, we described that the implic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vent, social support, coping, wisdom, path analysis*